

연기금 의결권 행사 딜레마, 그리고 '책임의 실종'



[전광우·손현덕의 통쾌한 경제 - 6] 운동경기 중 특히 골프게임과 금융투자는 유사성이 많아 보입니다. 프로선수와 아마추어는 공이 해저드(물이나 벙커 등)에 빠졌을 때 더 큰 차이가 난다고들 하지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진짜 프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저력을 발휘합니다. 자산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중심을 잃고 헤매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니까요. 물론 프로다운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관중들의 성숙한 태도 또한 필수겠죠.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 총자산의 약 20%에 달하는 100조원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시가총액 전체의 7%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5% 지분 보유 상장사는 285개사로 지난 5년간 30% 늘어났고, 1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상장사도 76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9%대, SK하이닉스는 10%대, 현대차도 8%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수행해야 할 의결권행사는 연간 대략 2500건에 달하지요.

연기금 의결권 이슈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세간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3대 연기금(국민, 사학, 공무원)이 의결권행사 여부를 모두 외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차별적 책임 추궁의 곤혹을 치른 기금담당자들의 신중한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의결권행사는 주주로서의 권리이자 수탁자의 의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을 책임 안질 외부기관에 떠넘긴다면 문제죠. 이를 테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떠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폭 넓은 의견을 구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스스로 최종적 판단을 못 한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는 오래전 괴테

의 말이고, 잘못된 행동(bad action) 보다 더 나쁜 건 '행동 안하는 것(inaction)'이라는 말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나 좌고우면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경구(警句)입니다. 의결권을 외부에 맡길 경우 생기는 문제의 하나는 국내외 자문사의 '단기적' 시각이 '중장기적 투자가치 극대화'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과 상치될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입니다. 기금운용에는 신중함 못지않게 신속함, 즉 타이밍이 중요하죠. 연기금의 글로벌 수익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효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을 놓고 국민연금의 입장이 난감한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 노후자산 관리자의 기본과 책임을 되새겨야겠죠. 사실상 최근 국민연금의 '몸 사리기'는 검찰조사, 중복감사, 여론질타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큼니다. 중요한 건 기금운용 원칙과 전문가적 양식에 부합하는 경영적 판단이라면 결정을 인정해주는 문화의 정착입니다. 해외 우수 연기금에서는 이미 당연한 관행이죠. 세계적 경영컨설턴트 켄 블랜차드의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긍정의 힘과 열정 에너지가 조직 성공의 드라이버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리한 비판이나 책임추궁부터 없어져야 '책임의 실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